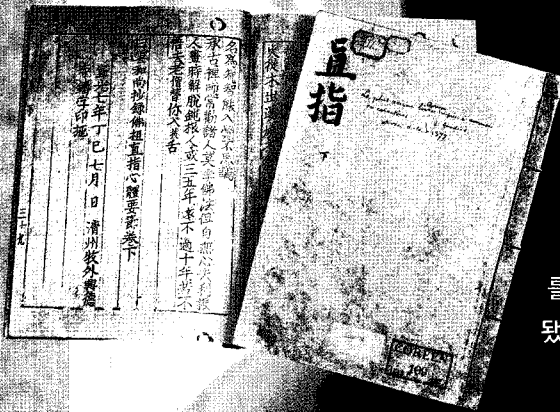


직지의 代母 박병선 박사 직장암 투병

“하루빨리 일어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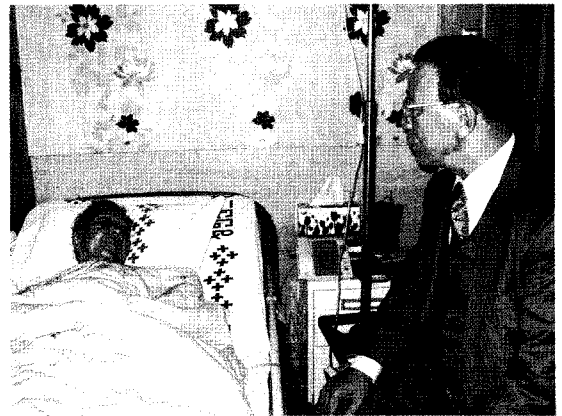
문병 줄이어... 흥우동 회장·조정석 이사장도 금일봉 전달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세상에 알린 박병선(81) 박사가 직장암 투병중이다. 박병선 박사는 지난 9월 병인양요에 대한 한국 사료를 모으러 귀국했는데 격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직장암 4기다.



독신인 박병선 박사는 치료비와 병원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각계에서 모금이 이어졌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도 지난 11월 18일 박 박사가 입원중인 성빈센트병원을 찾아 쾌유를 빌고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도 금일봉을 전달했다. 지난 1월부터 매달 박 박사에게 매월 200만원씩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청주시는 후원기관·단체 발굴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기업체, 병원, 독지가 등 공동모금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박 박사 돕기에 나섰다. 시는 또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벌이는 한편 천사(1004) 나눔운동 기금에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웅진코웨이는 회사 차원에서 '박병선 기금'을 마련해 박 박사의 치료비를 대고, 앞으로도 박병선 박사의 연구를 잇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신한은행, 한독약품 등은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고,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해 온 8개 기업도 자체적으로 박씨의 투병과 연구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직지심체요절과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내고 해석하는 데 평생을 바친 박씨의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박병선 학술상'(가칭)을 제정해 후학들에게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박병선 박사가 찾은 직지심체요절

박병선 박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1955년 홀로 프랑스에 건너갔다. 소르본대학교 프랑스로고대학교육원에서 각각 역사학과 종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1979년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도서관에 소장된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 191종 297책을 찾아냈다. 직원으로 있으면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한 프랑스 국립도서관 근무 첫해에 박 박사는 소장품 중에서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낸 '직지' 하권을 발견했다. 이후 다양한 실험과 검증작업을 통해 '직지'가 독일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 도서의 해 기념 도서전시회에 '직지'를 출품해 그 가치를 공인받았다.

의궤작업도 진행

외규장각 도서는 박병선 박사가 거의 10년이 넘도록 찾아 나선 다음에야 발견할 수 있었다. 파리에 볼 일이 있어 찾아온 프랑스 국립도서관 베르사유 별관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서고에 한자로 된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말을 듣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다. 사정한 끝에 책들을 확인해보니 조선왕조 '의궤(儀軌)' 등 외규장각 도서들이었다. 1978년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낸 사실을 파리 주재 한국특파원들에게 알린 박병선 박사는 '한국의 스파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결국 이듬해 사표를 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옛 동료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외규장각 도서 297책의 해제작업에 착수했다.

박병선 박사가 198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간한 '조선조의 의궤'는 그가 당시까지 조사한 외규장각 도서와 국내 규장각·장서각 소장 의궤를 비교해 목록화한 것으로 조선왕조 의궤 연구의 초석을 닦았다. ☺

입냄속 차장 sang@print.or.kr

